

“쪽 둘러앉아 법회보면 좋을텐데...”



각자의 공간에서 2030세대 컴퓨터 실행수다에 참여한 불자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도안수, 달마보월, 진성, 공행.

“2030” 세대 4명이 3월 13일 저녁에 모였다. 실제 만남이 아닌 PC를 통한 채팅 공간에서다. 이들 4명은 법회, 젊은 사람들의 신행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세대의 신행을 위한 공감대 찾기, 함께 들어가 보자.

진행자(기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불교신문 김강진 기자입니다.
달마보월(본명 정영철 · 35): 달마라고 합니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불여사)’이라는 모임을 통해 불교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본명 박기성 · 32): 봉은사와 한미음선원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진성입니다.
도안수(본명 김현영 · 28): 도안수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동네 사찰에다 적을 두고 있어요.
공행(본명 임재찬 · 26): 군에서 갓 제대했습니다. 공행입니다.
진행자: 불교를 왜 좋아하나요?
달마보월: 불교하면 ‘산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통과 맞닿아있는 종교라 그런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진성: 믿음 자체를 강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누구나 ‘해탈’ 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도안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불교는 그 무엇보다 ‘내면’에 집중하기를 강조하지요.
공행: 저는 불교의 수행 방식이 좋아요. 참선이나 명상은 ‘참살이(헬빙)’를 중시하는 젊은 코드에 맞지 않아요?

“청년들 모임의 장 많이 생겼으면...” 불자라고 하면 ‘늙은이’라고 놀림받기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통해 배움-실천 연결

진행자: ‘불자’라고 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반응?
진성: 주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 ‘불교는 사이비다, 늦기 전에 다른 길로 가라’는 말을 곧잘 들어요.
도안수: 속으론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무반응이예요.
공행: ‘늙은이’라고 그러던데요. 처음에는 속상했죠.
달마보월: 저는 뭐, 괜찮던데요.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 일 것 같아요.
진행자: 요즘 불교계가 젊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나요?
공행: 산사음악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 공연을 한다든지,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예요.
달마보월: 교구본사들도 점점 젊은 불자들의 코드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법회에서도 스님들께서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진성: 우리가 이미 불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행사에 오는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하나의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편적이죠.
도안수: 그런 행사를 한다 해도 아는 사람은 진성님 말씀처럼 기존 불자들 또는 관광객들 정도예요. 그야말로 표피적인

데, 젊은 사람들이 꼭 ‘감각적인 것’만 좇는 건 아니예요. 본질도 항상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진행자: 사찰 법회는 재미있나?
공행: 솔직히 법회가 좀 재미없는 부분은 있죠.
달마보월: 심오한 법회도, 가볍게 다가가는 법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회가 늘 재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성: 그렇지만 저는 법회 때 과연 처음 온 사람들이 저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초심자 입장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한문이 나오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도안수: 지루할 뻔 가지게도 좀 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법회 자체의 분위기 보다는 그런 휴식시간이나 대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공행: 맞아요. 전 법회를 쪽 둘러앉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스님과 소담한 모임을 만들어 공급한 것은 그때 그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진행자: 젊은 사람들을 사찰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달마보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겠지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사찰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알아서 ‘모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대감도 생기죠.
공행: 사실 젊은이들의 ‘불자회’ 자체가 많지 않죠.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절에 갔더니 순 할머니들뿐이어서 창피해서 법당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법회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달마보월: 전 ‘불여사’ 활동을 하다 보니 주로 회원들과 성지순례를 겸한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전 ‘동지청소년의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함께 불경을 친다거나 하면서 오락도 즐기죠.
진성: 솔직히 술자리도 가지지 않아요? 불자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술자리 분위기도 좋거든요.
도안수: 사실 우리는 5계를 지켜야 하지만 ‘불음주계’만큼은 너무 지키기 힘들죠. 차츰 ‘술’을 ‘차’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공행: 저도 ‘술’은 좋아하지만... 차담이나 등산 쪽이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진행자: 젊은 불자로서 각오 한마디씩...
달마보월: 현재 나가고 있는 ‘불여사’와 같은 모임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갔으면 해요. ‘불자’까지는 아니어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사찰 순례를 다니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성: 저도 달마님처럼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배움과 실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강추(반드시 하기를 권장함)입니다!
도안수: 제대로 공부할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불교대학에 등록할까 해요.
공행: 당면과제를 풀어야겠는데요? 제가 다니는 사찰에 불자 친구들을 모아 올해 봉축 행사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점점 젊은이들의 참여가 줄어들다는데, 올해는 우리가 앞장 서야죠.

정리=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부처님 경영’ 제 꿈입니다

(주)준앤준INS 박준탁 대표이사

서울 봉천동 골목, 유흥가 밀집지역인 이곳에 유난히 차분한 건물 이 눈에 띈다. 건물의 1층과 지하1층을 쓰고 있는 IT 전문회사 (주)준앤준아이엔에스(JUN&JUN INS)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겠다는 박준탁(35·송산·사진)대표이사 가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이다.

2003년 3월 설립된 홈페이지, 시스템구축 및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준앤준’에는 박 대표의 인생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직업 7명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 식구들이 25명으로 늘어났고, 봉천동과 청량리에 각각 본사와 지사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성공’한 벤처기업이 된 셈이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연 있는 스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셨고, 또 불자 사장님들이 저희 쪽에 일을 많이 의뢰해주셨죠.”

‘불제자’를 자부하는 박 대표의 불법에 맞게 세상을 경영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박 대표가 일터에서 갖는 화두는 불법(佛法) 경영과 불교청년문화 토대 마련이다.

경영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 중 하나가 ‘화가 나도 직원들 탓하지 않기’다. 그래서 차에도 사무실에도 늘 염주를 걸어둔다. 마음에서 불이 날 때마다 한 알씩 골리다 보면 어느새 화는 가라앉고 평온한 기운만 남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이런 마음공부는 서울대 재학시절, 자운암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청년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 불자들이 부대길 ‘토양’이 부족함을 알게 됐고, 직접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소식지를 내고 있는 ‘청년문화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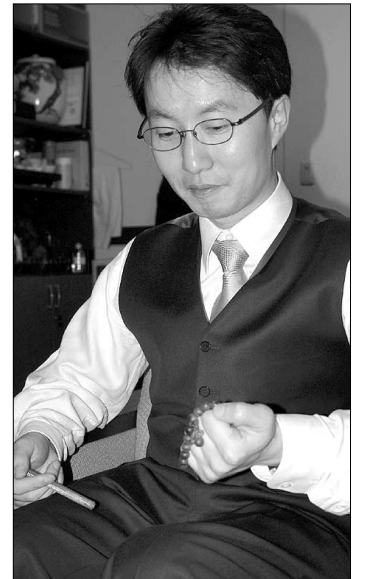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이 왜 없을까. 박 대표는 그저 어려운 일을 즐긴다며 웃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고비도 몇 번 넘겼다.

언젠가는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린 적도 있다. 주머니에는 500원이 남아 있었다. 그때 그는 절망 대신 ‘껍라면’을 택했다. ‘먹고 힘내서 다시 일구자’는 생각 때문이다. 이쯤 되면 배포가 두둑하다 못해 간이 크다. 하지만 박 대표는 “보증이 잘못 되는 것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면서 웃는다.

하지만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늘 외롭다. 옆 사람들이 아무리 챙겨줘도 경영자는 결국 혼자 결정하고 걸어 가야 한다. 현실과 싸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사회를 위해 환원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 환경을 책임져 줄 수 있기에 늘 고민이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탄 배의 선장이므로 항상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힘들 때면 절에 가서 에너지 충전합니다. 제게 주신 불법의 크나큰 은혜를 사회 속에서 다시 베푸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

귀의 삼보하오며
 한국의 삼대(三大) 관음성지로 이름난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한국 제일가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거룩한 이 도량에 30여 년간을 나무를 심고 터를 닦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千日기도와 함께 대웅전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고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를 봉행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最庵 합장

증명: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性壽 大宗師

등참안내

1. 대웅전 낙성식 법회 / 2006년 양력 4월 8일 오전 11시
2. 낙성식 축하공연(안숙선 명장, 연예인 김병조) / 오후 2시
3. 기도성금: 30,000원, 영가 1위당 10,000원
4. 기념품 증정(접수 아신 분), 국민 119-01-0196-150 주병남
5. 관광버스 단계로 오실 분은 미리 연락바랍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기도영험도량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

☎ (051)722-7744, 7755